요약보고서 정책보고서 2019-01

“행복한 가족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연구

연 구 책 임 양 정 선 (본원 연구위원)
연 구 지 원 최 금 순 (본원 위촉연구원)

(재)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Gyeonggido Family & Women Research Institute

목 차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01

2. 연구내용 ····· 01

3. 연구방법 ····· 02

4. 2018년 행복한 부부 프로그램 운영결과 분석 ····· 02

5. 행복한 부부 프로그램 내용 분석 ····· 03

6. 향후 사업의 발전을 위한 시사점 ····· 05

7. "행복한 가족 프로그램" 모듈 제안을 위한 현장전문가 실태조사 ···· 06

8. 행복한 가족 프로그램 모듈 제안 ····· 08

9. 정책제언 ····· 20

연구요약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경기도 자체 가족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행복한 가정 프로그램(2019년 사업명칭)’을 보다 발전시키기 위하여 경기도의 지역특성과 가족특성의 분석에 기초하여 “행복한 가족 프로그램 모듈” 을 개발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음.

○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합쳐져 통합센터로 운영됨에 따라 건강가정지원사업이 줄어들고 있는 현 시점에서 건강가정지원사업의 활성화를 추구한다는 측면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음.

○ 본 연구는 31개 시군의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사업 기획 및 운영 시에 가이드 라인이 될 수 있는 모듈을 제안할 것이며, 경기도의 가족 정책과 사업을 위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할 것임.

2. 연구내용

○ 경기도 지역별 가족특성 분석

○ 행복한 부부 프로그램 운영결과 분석

○ 행복한 가족 프로그램 모듈을 위한 실태조사

- 31개 건강가정지원센터 현장전문가 대상 설문조사

- 31개 시군 센터장 및 총괄팀장 대상 간담회

○ 행복한 가족 프로그램 모듈 제안

○ 정책 제언

3. 연구방법

○ 문헌고찰

○ 국가 승인 통계 분석

○ 가족사업 현장전문가 대상 설문조사

○ 학계 및 현장전문가 대상 간담회

4. 2018년 행복한 부부 프로그램 운영결과 분석

○ 2018년 경기도의 31개 시군 중 의왕시, 안성시, 동두천시, 연천군을 제외한 27개 시군이 행복한 부부 프로그램(2018년 사업명칭) 사업에 참여하였음. 행복한 부부 프로그램은 교육, 활동 등의 내용으로 총 4회기를 구성하고 필요시 자조모임을 구성하며 상담서비스를 연계하는 방안으로 사업지침이 마련되었음.

○ 사업 지침 상에서는 생애주기별로 참여대상을 구분하여 생애주기 3그룹 이상이면서 그룹별 15쌍 이상으로 추진할 것을 원칙으로 하였음. 사업의 구체적 내용은 자율적으로 기획하되, 집합교육, 체험교육, 캠프 등 내용에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여 운영하도록 하였음.

○ 2018년 사업에 참여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사업 실적을 분석한 결과, 각 센터마다 사업 내용이 다채롭고 실적에서도 많은 차이가 나타남.

○ 사업에 참여한 센터들의 사업실적 평균은 14.7회기였고, 가장 많은 곳에서는 총 38회기를 진행하였음. 38회기의 실적을 보인 센터는 1일 나들이와 캠프를 모두 진행하였고, 자조모임이 활발히 이루어져 회기수가 많았음.

○ 사업에 참여한 수혜자 수는 가장 적은 곳과 많은 곳 간에 10배 가까운 차이가 보여지는데, 수혜자가 가장 많은 곳에서는 802명이 수혜를 받았음. 센터 당 누적인원으로 평균 약 332명이 서비스를 받은 것으로 나타남. 수혜자가 가장 많았던 지역은 앞서 회기수가 가장 많았던 센터와 동일센터임.

○ 사업에 참여한 수혜자들의 만족도는 5점 척도로 평균 4.73점으로 높게 나타났음. 회기 수 및 인원에서는 지역 간 상대적인 범위가 크게 벌어져 편차가 나타났으나 만족도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편차가 적음. 만족도가 가장 낮았던 시군에서도 평균 4.45점으로 나타나 수혜자들의 만족도 측면에서는 사업이 성공적이었음을 알 수 있음.

5. 행복한 부부 프로그램 내용 분석

○ 행복한 부부 프로그램 내용을 분석하기 위하여 사업 결과보고서를 분석하였고, 학계 및 현장 전문가 대상 간담회에서 대두된 내용들을 수렴하였음.

○ **다양한 컨텐츠의 모색** : 수원시는 '사상체질' 이라는 새로운 분야와 프로그램을 접목시켜 중년기 부부 대상으로 '체질로 알아보는 부부공감 성교육' 을 진행하였음.

○ 성남시에서도 체질을 중심 키워드로 하여 부부갈등, 스트레스 해소, 갈등대처 등의 내용을 다루었고, 고양시에서도 중년기 부부를 대상으로 사상체질과 건강의 문제를 연결하여 프로그램을 구성하였음.

○ 화성시는 체험의 기회가 없는 중·노년기 부부의 특성을 감안하여 도예체험, 요트체험, 트래킹과 같은 활동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였음.

○ 중년기 및 노년기를 사업 대상자로 하다 보니 건강에 대한 컨텐츠가 많이 활용되었음. 구리시에서는 한방의 이해, 공진당 만들기, 약초 활용법 등의 컨텐츠를 부부건강 증진을 위한 내용으로 활용하였고, 포천시는 푸드 테라피를 활용하여 몸에 맞는 생활습관이나 음식으로 자연치유할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보았음. 이러한 사례들은 참여자의 연령별 특성에 따라 모색한 새로운 컨텐츠들을 보여주는 예임.

○ **다문화 가족 대상자 모집의 어려움** : 다문화 인구가 많지 않은 지역인 경우 모집에 어려움을 겪었고, 취소율도 높은 애로사항이 있었음.

○ **수혜자 유형 확대** : 안양시는 재혼부부를 포함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광명시는 군부대와 연계하여 군인부부 대상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음.

○ **노년기 프로그램 운영** : 노년기 프로그램을 처음 운영한 센터의 경우 센터의 인지도를

높이고 홍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기술하였음. 향후 정례화된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하였음. 그러나 노년 부부 대상 교육의 경우 집중에 한계가 있었다는 센터도 있었음.

○ 양평군의 경우 유사 프로그램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 관내 노인대상 프로그램 조사를 실시하여 부재한 컨텐츠로 구성하는 노력을 보였음.

○ **전문강사 섭외의 어려움** : 지역에 따라서 전문강사 섭외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들이 있으므로 우수한 전문 강사의 풀을 공유할 필요가 제기되었음.

○ **프로그램의 모니터링** : 많은 센터에 적용되는 사례이기는 하나 특히 용인시의 경우 현장전문가들이 매회기 진행하는 프로그램에서 수혜자들과 소통하여 프로그램 방향에 그 요구가 반영되도록 내용을 재구성하거나 심도 있게 다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였음.

○ 유연하게 프로그램을 운용하는 실무자들의 노력과 역량이 보여지는 부분임. 과천시는 후년 사업의 보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프로그램의 회기가 종결될 때마다 참여자들의 소감을 조사하였고, 이를 꼼꼼하게 모니터링하였음.

○ **동반 자녀의 돌봄** : 부부 프로그램 참여 시 자녀 돌봄의 서비스를 제공한 센터가 많았으나, 단순한 돌봄으로 장시간 이어지는 경우 아이들이 쉽게 지루해하여 부부의 프로그램 몰입도에 문제가 있었음.

○ 하남시는 자녀 돌봄 분제로 교육 참여율이 저조할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자녀 프로그램을 동시에 진행하였음. 이를 위해 아이돌봄 기관 방문 서비스, 자원봉사 동아리, 자원봉사자, 강사 등을 활용하였고, 그 결과 자녀 돌봄 및 프로그램의 질이 높아서 부부교육의 만족도가 더 높게 나온 것으로 자체 분석하였음.

○ **참여자 배려** : 남양주시에서는 임신기 부부교육을 진행하면서 청각장애인 부부의 프로그램 참여를 위해 수화통역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기도 하였음.

○ **서비스 연계** : 양평군의 경우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갈등이 심각한 부부 대상자를 발굴하게 되었고, 이들에게 상담 및 프로그램 연계를 통한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진행하기도 하였음.

6. 향후 사업의 발전을 위한 시사점

○ **기관연계로 찾아가는 서비스 모색** : 일부 센터에서는 대상자 모집을 위해 노인 관련 시설 및 기관에 각별한 협조를 구하기도 하였음.

○ 노년기 프로그램을 위해서는 노인대학, 노인복지관 등과의 적극적인 연계를 모색하고 찾아가는 서비스로 진행하는 것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음. 특히 장소가 협소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는 센터의 경우 기관연계로 찾아가는 서비스를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음.

○ **사업의 모니터링에 따른 프로그램 환류** : 프로그램의 종료 후 모든 센터가 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나 보다 발전적인 프로그램과 유연한 진행을 위해서는 프로그램 진행 시에 현장전문가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프로그램 환류가 필요함.

○ 사업의 모니터링과 평가는 다른 차원으로서, 평가와 모니터링이 모두 필요함. 사업 목표 달성을 위하여 프로그램을 예정된 계획대로 진행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혜자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이 필수적이고, 이는 모니터링의 중요한 과정임.

○ 이러한 모니터링을 통해 매 단계마다 전략적으로 대처하는 모니터링 반영 노력이 수반되어야 함. 이를 위해 현장전문가들의 소통 기술과 합동적인 대처 역량이 필요함.

○ **홍보** :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지속적으로 새로운 수혜자를 발굴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접근이 가능한 지역 내 아파트 엘리베이터,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학부모회, SNS 등을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참여 수혜자 수** : 위기부부와 같이 특수한 대상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경우 수혜자의 수가 많지 않은 특성이 있으나 의미 있는 사업일 수 있음. 따라서 일관되게 참여 수혜자 수로 사업의 성과를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음.

○ **프로그램의 목적과 내용** : 프로그램의 목적은 부부관계의 질적 개선을 통해 가족의 기능을 보다 원활하도록 지원하는 것에 있음. 그러나 이것이 부부가 모든 프로그램에 함께 동반으로 참여해야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 프로그램의 처음부터 끝까지 동반 참여로 한정짓는 경우 현실적인 어려움을 따를 수 있으므로, 프로그램의 회기 및 내용을 기획할 때에는 이를 융통성 있게 조절할 필요가 있음.

○ 유념해야 할 사안 중의 하나는 노년기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임. 노년기에 사별, 이혼, 질병 등의 이유로 배우자 없이 홀로된 노인을 위한 프로그램은 자녀세대와의 관계 형성 및 생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것에 주안을 두어야 하고, 배우자와 함께 노년을 보내고 있는 노인 대상 프로그램에는 부부관계가 추가되어야 함. 프로그램의 내용에 따라 대상자 모집에 차별을 두는 것이 바람직함.

○ **지역과 기관의 특성 반영** : 지역 및 기관의 실정이 반영되지 않은 표준화된 지침으로 인해 프로그램의 대상자 모집과 진행에 어려움이 컸다는 의견들이 많았음. 향후에는 지역의 특수성과 기관의 역량에 따라 융통성있게 사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음.

○ **자녀 프로그램의 동시 진행 필요** : 대부분의 센터에서 어린 자녀를 둔 부부의 프로그램 진행 시, 자녀 돌봄의 공백이 생기는 문제가 공통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자녀 프로그램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 **수료 및 인증** : 경기도와 시군에서 지원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하여 사업을 진행한 수혜자에게 프로그램 참여 수료증을 주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7. “행복한 가족 프로그램” 모듈 제안을 위한 현장 전문가 실태조사

가.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경기도 “행복한 가족 프로그램” 모듈 구성에 현장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경기도 내 31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함.

○ 조사는 2019년 3월 7일부터 ~ 3월 14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웹서베이의 형태로 이루어졌고, 가족사업(아이돌봄 사업을 제외한 상담, 교육, 문화 등)을 진행하는 팀원 및 팀장, 그리고 센터장을 대상으로 하였음. 30개 센터 총 147명의 응답이 분석에 사용되었음.

나. 사업의 우선순위

○ 건강가정지원센터 본연의 목적과 정체성에 기초할 때,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수행하는 사업 중 가장 중요한 사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3개를 골라 중복으로 응답하게 하였고, 그 결과 가장 많이 언급된 것은 가족상담, 가족교육, 가족문화의 순으로 나타났음. 직급별로는 팀장 및 팀원과 센터장 모두 상담을 교육보다 미소한 차이로 우선순위에 두었음을 알 수 있음.

○ 가족교육 사업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는 무엇인지를 조사한 결과, 부모교육(60%)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하였음. 이들 응답을 직급별로 살펴보면, 팀장 및 팀원은 부모교육(63.3%)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한 반면 센터장은 부부교육(52%)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하여 직위에 따른 응답 우선순위에 온도 차를 보였음.

○ 부부교육 중 예비/신혼기 부부교육이 생애주기 상에서 가장 중요하다(66%)는 응답 결과를 보였음.

○ 건강가정지원센터 현장전문가들은 부모교육 중에서는 예비 부모교육, 영유아기 부모교육, 초등자녀 부모교육의 순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났음. 자녀를 갖기 전에 부모로서 갖추어야 할 준비와 소양 교육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였고, 그 다음으로는 영유아기의 애착 형성에 무게를 두었음.

다. 가족관계에 대한 인식

○ 현장전문가들에게 가족관계에서 소통이 가장 잘 안 되는 관계 또는 갈등이 가장 많은 관계는 어떤 관계라고 생각하는지 질문한 결과, 팀장 및 팀원은 시부모와 며느리의 관계에서 소통이 가장 어렵고 갈등이 많은 관계라고 생각하였고, 센터장은 아버지와 청소년기의 자녀 관계라고 응답하였음.

라. 건강가정지원센터의 향후 사업

○ 건강가정지원센터가 다른 기관과 차별화되면서 기관의 정체성을 살리기 위해 향후 더

욱 주력해야 할 건강가정사업 분야로는 가족교육을 1순위로 꼽았음.

○ 건강가정지원센터가 다른 기관과 차별화되면서 기관의 정체성을 살리기 위해 향후 더 주력해야 할 사업분야 2순위에서는 가족돌봄나눔과 가족상담이 동일한 비율을 보였음. 이들 응답을 직급별로 살펴보면, 팀장 및 팀원은 2순위로 가족돌봄나눔 사업을 꼽은 반면, 센터장은 가족상담 사업을 꼽아서 향후 주력해야 할 2순위에서는 직급 간 견해 차를 보였음.

○ 과거 경기도의 특화사업으로 수행한 3세대 통합 가족사업에 대해서 그 필요성을 조사한 결과, 센터장의 92.3%가 3세대 통합 가족사업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연령대가 높은 집단에서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동의가 상대적으로 많았음.

○ 행복한 갱년기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높은 동감을 보여, 팀장 및 팀원의 88.4%과 센터장의 96.2%가 사업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음.

○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통합서비스를 진행하는 센터만을 대상으로 사업의 비중에 대해 조사한 결과, 다문화 사업 대비 건강가정사업이 부족하여 향후 확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수인 53.3%로 나타났음.

○ 팀장 및 팀원 집단에서는 현재의 사업으로 충분하다는 의견(52.3%)이 부족하다는 의견(47.7%)보다 많았고, 센터장의 경우 부족하다는 의견이(78.9%) 충분하다는 의견(21.1%)보다 압도적으로 많았음. 또한 연령이 많은 집단에서 건강가정사업이 부족하여 확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더 많았음.

○ 1,000만원의 예산으로 행복한 가족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적절한 회기 수, 적정 가족 수 및 대상자 수를 조사한 결과, 평균 19가족, 66명, 10회기를 운영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의견이 나왔음.

8. 행복한 가족 프로그램 모듈 제안

가. 3세대 통합 프로그램

○ 사업의 필요성 및 배경

▸ 2018년 현재 경기도의 전체 인구에서 60대 이상의 인구는 17.9%로 2000년 8.8%에서 2배 이상 증가하였지만, 확대가족을 포함하는 경기도의 3세대 가구는 2000년 8.8%에서 2017년 5.3%로 감소하여 세대 간 분리 가구 특성이 보여지며, 이로 인한 세대 간 단절 및 소통의 어려움이 심화될 수 있음.

▸ 경기도는 2015년에는 '3세대가 행복한 경기도 삼행(三幸) 프로젝트' 를 추진한 바 있으나 예산의 문제로 지속하지 못하였음. 그러나 본 연구에서 실시한 현장전문가 대상 조사에서 3세대 통합 사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83%에 달해 사업의 재추진이 요구됨.

○ **사업의 목적**

▸ 가족 내 전 세대의 소통과 화합을 중심으로 하는 가족의 응집성 향상

▸ 조부모의 역할회복, 관계개선, 문화전수

▸ 지역 사회 내에서의 가족 간 통합

○ **사업 내용**

▸ 1·2세대, 2·3세대, 1·3세대, 2·2세대, 1·2·3세대가 각각 또는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함. 조부모-손자녀 관계, 부모-자녀 관계, 조부모-부모 관계를 개선시킬 수 있는 컨텐츠로 사업의 내용을 구성함.

▸ 사업의 본질은 세대 간 소통과 화합에 있으므로 **1·2·3세대가 모두 함께 참여**하는 1일 **체험 또는 캠프**는 **필수** 요소로 포함시킴.

▸ 회기 수 : 실태조사 결과 1,000만원의 사업비로 행복한 가정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평균 9.8회기 정도가 적정하다는 응답이 도출되었으므로, 여러 세대가 모여야 하는 어려움을 감안하여 **7회기** 이상 추진을 권고함.

▸ 형식 : 교육, 문화, 체험, 캠프 등 다양하게 구성

○ **사업 대상자**

▸ 3세대가 함께 거주하는 확대가족을 비롯하여 분거 상태에 있더라도 3세대가 함께 참여하고자 하는 경기도 거주 가족이면 가능함.

▸ 조부모 세대는 외조부모 혹은 친조부모여도 무관하며, 조부모 세대에서 생존하신 1분만

참여하는 것도 가능하고, 손자녀의 연령대 역시 제한 없음.

▸ 핵가족과 확대가족 뿐만 아니라 한부모 가족, 다문화 가족 등 다양한 유형의 가족이 3세대 이상 참여 가능할 경우 모두 신청 가능함.

▸ 사업 대상자 수 : 여러 세대가 모여야 하는 어려움을 감안하여 **10~12가족 내외** 혹은 **총 인원수 40명 내외** 추진을 권고함. 3세대 통합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1가족 당 최대 6~7명이 동반할 수 있는 점, 캠프나 1일 체험을 위한 버스 이동 시 최대 탑승 가능자 수, 사업 담당자가 실외에서 위험 관리할 수 있는 총인원 등을 고려하였고,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였음.

○ **지역 특성 반영**

▸ 3세대 이상 가구가 많은 농촌 및 도농복합 지역(남양주시, 여주시, 과천시, 연천군, 파주시 등)과 부부 및 미혼자녀로 구성된 핵가족의 비율이 높은 지역(과천시, 용인시, 군포시, 화성시, 안양시 등)에 적합함.

▸ 노인 인구가 많고 보수적인 가족 가치 지향을 지닌 농촌 도농복합 지역에 3세대 통합 프로그램이 적합하지만, 사업 대상자 모집이 도시 지역보다 더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농촌 지역 및 도농복합 지역에서는 사업 대상자 수를 조금 낮추더라도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나. 다문화 가족 프로그램

○ **사업의 필요성 및 배경**

▸ 경기도 외국인 등록 인구는 꾸준한 증가 및 유지세를 보이면서 2017년 38만명을 넘어섰고, 외국인과의 혼인은 2018년 현재 전체 혼인의 9.4%로 2015년 이후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그러나 경기도 거주 20~30대 기혼여성 1,917명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30%의 응답자가 다문화 가정 증가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었고, 40%의 응답자가 인구정책 측변에서 다문화 가족 지원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의견을 보여 지역 내 적극적인 다문화 수용 정책이 필요함을 보여줌.

○ **사업의 목적**

▸ 다문화 가족의 가족 내 관계 향상과 응집성 향상

▸ 다양한 유형의 가족 수용과 가족 간 교류 촉진

▸ 지역 사회 내의 다문화 인식 제고

○ **사업 내용**

▸ 다문화 가족 프로그램은 체험을 위주로 진행되고, 교육은 대부분 의사소통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그 외에 다루어야 할 내용도 고려함.

▸ 다문화 가족 내 남성을 대상으로 가족생애주기에 따른 가족의 발달 과업, 바람직한 부부관계를 위한 성평등, 다문화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와 배려, 아버지 교육, 부부 교육 등을 실시하되, 성평등적인 관점의 부각과 강조가 중요함.

▸ 다문화 가족 내 여성을 대상으로 가족관계 교육, 가족생애주기에 따른 가족의 발달과업, 부부 교육, 부모 교육 등을 실시함.

▸ 다문화 가족 이외의 유형 가족을 대상으로 다양한 유형의 가족에 대한 이해 및 다문화 가족의 특수성에 대한 교육을 진행함(교육에 대한 수요가 많지 않을 것이므로 다른 교육 및 체험을 위해 모인 집단을 대상으로 끼워 넣기 교육을 실시하는 전략이 필요함).

▸ 다문화 가족과 그 밖의 다양한 가족유형 전체가 참여하는 문화, 체험, 캠프 등을 함께 진행함.

▸ 회기 수 : 다문화 가족의 남성 대상 교육 2~3회기, 여성 대상 교육 2~3회기 각각 진행하고, 부부가 함께 참여하는 체험을 2~3회기 정도 진행하여 **총 7회기** 이상 추진할 것을 권고함.

▸ 형식 : 교육, 문화, 체험, 캠프 등 다양하게 구성하고 필요에 따라 개별 및 집단 상담을 추가함. 더불어서 다문화 가족 대상 프로그램은 가족 간 교류 및 네트워크 형성이 중요하므로 프로그램 종료 이후의 자조모임 기획을 권고함.

○ **사업 대상자**

▸ 경기도에 거주하는 다문화 가족을 대상으로 하고, 다문화 가족의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

해 다양한 유형의 가족이 함께 참여함.

▸ 사업 대상자 수 : 다문화 가족 대상 프로그램은 중도 탈락이 많고 남편의 참여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이 있었으므로, 경기도에 거주하는 **다문화 가족 12가족** 이상, **그 밖의 가족 유형 5가족** 이상 추진을 권고함. 프로그램 기획을 다른 가족 유형의 포함 없이 다문화 가족으로만 구성할 경우 **다문화 가족 15가족** 이상 모집할 것을 권고함.

○ **지역 특성 반영**

▸ 외국인과의 혼인이 전체 혼인의 10%를 넘는 가평군(18.0%), 포천시(15.1%), 시흥시(14.8%), 동두천시(13.9%), 안산시(13.5%), 평택시(11.8%), 안성시(11.7%), 여주시(11.4%), 오산시(10.9%), 의정부시(10.4%), 부천시(10.1%), 양평군(10.0%)은 다문화 가족 대상 사업 수행을 권고함.

▸ 또한 전체 인구 중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화성시(인구 천명당 49.3명). 김포시(인구 천명당 44.8명)도 다문화 가족 프로그램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음.

다. 중장년 부부 프로그램

○ **사업의 필요성 및 배경**

▸ 2018년 현재 이혼 부부의 평균혼인지속기간은 15.6년이고, 혼인지속기간 20년 이상 이혼이 전년대비 9.7% 증가하여 구성비로 보면 33.4%로 가장 많음.

▸ 발달적 관점에서 중년기는 자녀양육기가 끝나고 자녀의 출가와 은퇴를 앞두고 있는 불확실한 시기이며 신체적·정서적으로 많은 변화를 경험하는 시기임.

▸ 본 연구에서 실시한 현장 전문가 대상 실태조사에서 팀장 및 팀원의 88.4%와 센터장의 96.2%가 중장년기 부부를 대상으로 실시했던 과거 행복한 갱년기 프로그램이 필요한 건강가정 사업이라고 응답하여 사업의 필요성이 제기됨.

○ **사업의 목적**

▸ 개인의 발달과업 완수 지원 : 중년기는 성격 발달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로 안정과 변화를 동시에 추구(Carl G. Jung, 1954)하고, 에릭슨(Erik Erikson, 1963)이 기술한 생산

성의 위기(crisis of generativity)를 극복하여 인생을 재설계함.

▸ 가족의 발달과업 완수 지원 : 연로하신 부모님을 모셔야 하는 부양의 의무와 청소년 자녀들이 정체감 갈등을 겪는 관계에서의 어려움 극복, 자신의 중년기 위기를 모두 해결해야 하고(이나미, 2000; 정현숙・유계숙, 2001), 자녀 출가와 은퇴를 준비해야 함.

○ **사업 내용**

▸ 개인의 발달과업 완수를 위해 갱년기에 대한 이해, 생애주기 상의 중년기 발달 과업, 생애 재설계 등에 대한 교육을 포함시킴.

▸ 가족의 발달과업 완수를 위해 청소년 자녀와의 관계, 성인기 자녀와의 관계, 부부관계를 위한 교육을 포함시킴.

▸ 본 연구의 실태조사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장들은 중년기 남편+아내의 가족관계가 청소년기 자녀+아버지의 관계 다음으로 갈등이 많은 관계라고 응답하였으므로 이 시기의 부부관계를 증진시킬 수 있는 체험도 중요하게 기획함.

▸ 회기 수 : 부부 각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부부 함께 하는 체험, 집단상담 등으로 구성하여 **총 9회기** 진행을 권고함. 1일 3회기 정도를 운영하는 one-day class, 워크샵 등의 다양한 형태로 구성하는 융통성을 가질 수 있음.

▸ 형식 : 교육, 문화, 체험, 캠프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하되, 갈등 관계가 심한 부부는 이후 지속적인 상담으로 연계하는 서비스를 진행함.

○ **사업 대상자**

▸ 경기도에 거주하는 중장년 부부를 대상으로 함. 현재 우리나라 여성의 완경은 45~55세 사이이고,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갱년기는 완경 이전(premenopausal), 완경 주위(perimenopausal), 완경 이후(postmenopausal)를 모두 포함(대한폐경학회, 2006)하므로 이 시기를 고려하여 사업자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음.

▸ 또한 연령과 무관하게 자녀가 청소년기, 성인기에 해당되거나 출가를 시작한 빈둥지 시기, 은퇴를 앞두거나 계획하는 시기도 해당됨.

▸ 핵가족과 확대가족 뿐만 아니라 다문화 가족 등도 생애주기 상의 이 시기에 해당하면 모두 신청 가능함.

▸ 사업 대상자 수 : 실태조사 결과 1,000만원의 사업비로 행복한 가정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평균 19가족 정도가 적정하다는 응답이 도출되었으므로, 중장년 부부의 경우 **17가족** 이상 추진을 권고함. 그러나 30명 이상 들어갈 수 있는 교육장과 물리적 여건이 갖추어지지 못한 센터들이 있으므로 물리적 제약이 있는 센터의 경우 15가족 이상 총인원 30명 이상으로 조정할 수 있을 것임.

○ **지역 특성 반영**

▸ 31개 시군 중 40대 인구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용인시(19.2%), 화성시(18.8%), 시흥시(18.7%), 오산시(18.5%), 남양주시(18.4%), 김포시(18.1%)가 프로그램 진행에 적합함.

▸ 50대 인구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포천시(20.1%), 안산시(18.9%), 가평군(18.7%), 의왕시(18.2%), 양평군(18.1%), 여주시(18%)에서 프로그램 기획을 고려할 만함.

라. 군인 가족 프로그램

○ **사업의 필요성 및 배경**

▸ 경기도는 이북과 이남이 경계를 이루고 접하는 지역으로서 군사적 방위의 중요성이 어느 지역보다도 중요하며, 비무장·비전투 지역인 DMZ의 34.5%를 경기도가 차지하고 있음. 경기도는 파주시 장단면 정동리에서부터 개성 남방의 판문점을 지나 연천군 신서면 도밀리까지 약 86km의 휴전선을 접하고 있으며, 경기도의 총 면적 중 22%가 군사시설보호구역에 해당함(경기도, 2008).

▸ 군인 가족은 일반 가족과는 매우 다른 특수성을 갖는데, 전속으로 인한 잦은 이주, 그로 인한 자녀의 교육 및 적응 문제, 배우자의 안정적인 취업의 어려움, 업무의 특수성을 인한 배우자와 자녀들의 정서적인 어려움, 배우자의 과도한 역할 부담, 이동이 자유롭지 못한 가족의 여가 활동 제약, 다른 직업에 비하여 정년이 빠르기 때문에 비롯되는 노후준비 어려움 등이 있음. 이들 가족의 특수성을 반영한 가족지원 서비스가 필요함.

○ **사업의 목적**

▸ 가족 내 정서적 안정 도모 및 가족의 응집성 향상

▸ 가족생애 설계를 통한 노후준비 지원

▸ 이동이 자유롭지 못한 군인 가족의 여가 욕구 충족

○ **사업 내용**

▸ 군인가족 대상 실태조사 결과 가족교육 사업 중에서는 노후생활설계 교육 참여 의향이 가장 높았고(68.9%), 부모-자녀관계 향상교육(60.5%)과 아버지 교육(52.4%)의 순으로 나타났으므로 교육 내용 안에 생애교육, 부모교육, 아버지교육이 포함되도록 함.

▸ 앞서 제시한 군인가족 실태조사 결과, 여가생활 만족도는 5점 만점에 평균 2.8점으로 보통 수준에 미달하였고, 가족여가의 방법으로는 가족나들이와 여행을 가장 많은 응답자가 선택(60.9%)하였으므로, 군인가족 대상 프로그램은 캠프 혹은 1일 나들이를 통해 진행하는 것도 좋을 것임.

▸ 캠프 혹은 1일 소풍 프로그램 안에 생애설계 교육, 부모-자녀관계 향상 교육, 부부 교육이 포함되도록 하고, 동반 자녀를 위한 프로그램을 별도로 동시 진행할 필요가 있음.

▸ 교육과 더불어서 온가족이 참여하여 가족의 지나온 시간을 돌이켜보고, 앞으로 가족의 미래를 위해 가족구성원 모두가 함께 노력하고자 하는 동기 부여의 체험 시간도 필요함.

▸ 회기 수 : 부모 프로그램과 자녀 프로그램이 동시에 별도로 진행되기 때문에 1박2일의 캠프로 진행할 경우 8회기 정도가 적당함.

▸ 형식 : 교육, 문화, 체험, 캠프 등 다양하게 구성

○ **사업 대상자**

▸ 경기도 소재 부대 및 그 부대에 소속된 군인가족

▸ 생애주기 상에서 유사 단계를 지정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으나 지역과 센터의 특성을 감안하여 자율적으로 진행함.

▸ 사업 대상자 수 : 군인가족 20가족 내외가 적당하지만 캠프로 기획하여 이동성 및 안정성을 고려하고자 한다면 가족 수를 조금 하향 조정하도록 함.

○ **지역 특성 반영**

▸ 군부대의 위치 및 군인가족의 분포는 안보상의 문제이므로 통계 또는 행정문서를 통해 알 수 없음. 그러나 본 연구에서 실시한 현장 전문가 대상 실태조사에서 자신들의 지역

특성에 군인가족이 많다고 기술하였던 지역을 중심으로 군인가족 프로그램을 진행할 필요가 있음.

▸ 가평군, 고양시, 김포시, 양주시, 연천군, 의정부시, 파주시, 포천시 등에서 군인가족 프로그램을 진행하기에 적합함.

마. 재혼 가족 프로그램

○ **사업의 필요성 및 배경**

▸ 2018년을 기준으로 전체 혼인 중 재혼(배우자 중 한사람 또는 두 사람 모두 재혼인 경우)이 차지하는 비율은 22%였음. 이혼율이 높았던 시점(2003년)을 기준으로 다소의 등락을 보였으나 2010년 이후 혼인 5쌍 중 1쌍 이상(21~22%의 유지세)이 재혼으로 나타나고 있음.

▸ 특히 배우자 중 한쪽이라도 자녀가 있는 재혼가족의 경우 가족생애주기의 불일치가 있을 수 있고, 자녀는 생물학적 부모와 법적 부모를 갖게 되며, 재혼가족에 이르기까지 2가족은 모두 많은 상실과 이별을 경험한 상태임. 이들의 발달과업은 유사한 주기의 초혼가족과는 많은 차이를 지님. 재혼가족의 적응과 가족 기능의 원할한 수행을 위해 가족지원 서비스가 필요함.

○ **사업의 목적**

▸ 융통적이면서 기능적인 경계를 지닌 개방체계로서의 재혼가족에 대한 이해를 통해 역할 기대와 수용을 지원함.

▸ 재혼가족의 목표 설정을 통해 가족의 응집성을 지향함.

▸ 재혼가족 내 부부역할, 부모역할에 대한 발달과업을 완수하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재혼가족에 대한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함.

○ **사업 내용**

▸ 재혼가족이 형성되기 이전에 경험한 상실, 이별, 이혼, 애착, 초혼가족에 대한 부인이나 회피보다는 이것을 수용하고 충분히 애도할 수 있는 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존중하고, 새롭게 결합된 가족이 서로 이해할 수 있도록 재혼가족의 특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함.

▸ 생애주기별 가족의 발달과업에 대한 이해를 통해 결합된 가족 간의 생애주기 격차에 잘 적응하도록 지원함.

▸ 선행연구 결과 재혼가족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부부관계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견고한 부부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배우자에 대한 이해와 의사소통의 교육 및 체험을 실시함.

▸ 전혼자녀가 친부모 및 조부모와의 원만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재혼가족의 부모역할에 대한 학습을 통해 가족의 재구성과 조화를 지원함.

▸ 재혼가족의 부부와 자녀가 모두 함께 참여하여 별도의 강의 및 상담, 그리고 다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센터의 특성과 기획 의도에 따라 융통성 있게 프로그램을 기획하도록 함.

▸ 회기 수 : 다른 프로그램에 비해서 심도 높은 전문가의 교육과 상담이 많이 요구되므로 소규모 참여자 중심의 다회기 사업이 요구됨.

▸ 형식 : 교육, 상담은 반드시 포함되고 그 외에 문화, 체험, 캠프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 사업을 수행하는 각 센터에서 상담 혹은 교육을 각자 진행하고, 캠프 또는 체험은 센터가 함께 모여 권역별로 진행하는 것도 효과적일 수 있음.

○ 사업 대상자

▸ 경기도에 거주하는 재혼가족 및 재혼을 준비하는 가족

▸ 사업 대상자 수 : 대상자 모집에 한계가 있으므로 사업 대상자 수는 따로 정하지 않음.

○ 지역 특성 반영

▸ 2018년 현재 재혼의 비율이 전체 혼인에서 30%를 웃돌았던 동두천시, 포천시, 가평군, 양평군, 여주시, 안성시, 양주시, 연천군에 적합함.

▸ 위의 지역을 제외하고 지역별 조이혼율이 2.5건 이상이었던 안산시, 시흥시, 광주시, 의정부시, 오산시에서도 본 프로그램에 대한 기획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음.

바. 한부모 가족 프로그램

○ **사업의 필요성 및 배경**

▸ 경기도의 이혼율은 전국의 패턴과 유사한 양상을 보이면서 변화하고 있는데, 2018년 현재 2.2건으로 전국의 조이혼율(2.1건)을 미소하게 상회하고 있음. 2015년 「인구총조사」에 따르면, 경기도 45~49세 여성의 10명 중 1명 이상(11.2%)은 이혼 상태에 있음.

▸ 한부모 가족 중 한모가족은 소득 감소와 취업 제약으로 인해 모자가족의 전형적인 경제문제, 자녀돌봄 시간의 절대적 부족, 과중한 역할로 인한 정서적 긴장감 등의 문제가 높고, 한부가족의 경우 자녀양육의 어려움이 크게 부각되고 있음. 한부모 가족의 소득지원 외에도 이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측면의 서비스 지원이 필요함.

○ **사업의 목적**

▸ 한모 또는 한부의 정서적 긴장감 완화

▸ 한부모 가족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

▸ 한부모 가족의 레질리언스 강화를 통한 삶의 질 향상

○ **사업 내용**

▸ 생애주기에 따라 아동과 부모의 발달과업을 이해하는 부모교육 실시

▸ 심리적·정서적으로 불안정한 한부모 대상 자존감 향상 교육 및 상담

▸ 부모 자녀 관계의 이해와 향상을 위한 가족 상담

▸ 자녀 대상으로 건강한 자아 정체감 및 성역할 정체감 향상을 위한 교육, 체험, 상담

▸ 부모와 자녀가 함께 참여하는 문화 및 체험 활동

○ **사업 대상자**

▸ 경기도에 거주하며 부모 중 한쪽의 사망, 이혼, 유기, 별거로 인하여 부 혹은 모와 18세 미만의 자녀로 구성된 가족

▸ 경제적으로 취약한 한부모 가족 뿐만 아니라 모든 계층의 한부모 가족을 대상으로 함.

▸ 사업 대상자 수 : 소수자 대상 사업으로서도 충분한 의미가 있으므로 사업 대상자 수에

제약을 두지 않음.

○ **지역 특성 반영**

▸ 「한부모가족지원법」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하여 지원을 받는 저소득 한부모 가족은 2017년 기준 안산시, 고양시, 성남시, 수원시, 부천시, 의정부시, 남양주시의 순으로 많았으므로 이들 지역에서는 한부모 가족 프로그램을 고려해볼 수 있음.

▸ 그러나 본 프로그램의 목적 및 취지가 저소득 한부모 가족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인구통계학적 특성 상 이혼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지역 중 위에서 제시한 지역을 제외하고 포천시, 안성시, 양주시, 가평군, 평택시, 동두천시, 시흥시, 광주시에서도 한부모 가족 프로그램을 고려해볼 수 있음.

사. 맞벌이 가족 프로그램

○ **사업의 필요성 및 배경**

▸ 2017년 10월 기준 18세 미만 자녀를 둔 맞벌이 가구는 220만 7천 가구로 유배우 가구 중 48.6%를 차지하고 있음. 2018년 15~54세 기혼여성 취업자 중 결혼, 임신·출산, 육아, 자녀교육, 가족돌봄 등의 이유로 직장(일)을 그만 둔 적이 있는 경험자는 37.5%로 나타남.

▸ 자녀의 교육과 돌봄의 문제로 인해 여성의 일·가정 양립이 어려워서 경력단절이 지속되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맞벌이 가족을 지원하는 법과 제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차원에서의 서비스 지원이 필요함을 알 수 있음.

○ **사업의 목적**

▸ 맞벌이 가족의 가족생활과 직업생활에 병행에 따른 역할 갈등과 긴장 완화

▸ 맞벌이 가족의 응집성 향상

○ **사업 내용**

▸ 직업생활과 가족생활의 양립에 따른 역할갈등과 대처 방법을 살펴보는 역할 긴장, 역할 공유 등에 대한 교육을 통해 일·가정 양립의 전략을 마련함.

▸ 가사와 육아의 역할 공유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실습위주의 역할 분담을 체험하며, 역할 공유를 위한 상담을 진행함.

▸ 맞벌이 가족의 특성으로 인해 주말이나 저녁시간대를 활용하여 사업을 수행함.

▸ 시간의 부족으로 인해 여가에 대한 욕구도 크므로 1일 나들이 및 캠프를 함께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며, 지역 사회 내 네트워크가 부족하기 쉬운 가족의 특성을 반영하여 맞벌이 가족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자리가 의미 있음.

▸ 회기 수 : 9~10회기를 권장함.

▸ 형식 : 교육, 문화, 체험, 캠프 등 다양하게 구성

○ **사업 대상자**

▸ 경기도에 거주하는 맞벌이 가족이면 가능함.

▸ 사업 대상자 수 : 시간의 부족으로 인해 일반 가족보다 프로그램 참여가 쉽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15가족 이상으로 추진할 것을 권고함.

○ **지역 특성 반영**

▸ 20~59세의 여성 고용률이 높았던 지역 중에서 가족 농업의 특성이 강한 농촌지역을 제외한 광명시, 구리시, 동두천시, 안산시, 의정부시 등이 맞벌이 가정 지원 사업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음.

▸ 또한 출퇴근 시간이 길어질수록 일·가정 양립이 어렵다는 선행연구 결과에 근거하여, 서울로 통근 및 통학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과천시, 광명시, 하남시, 구리시, 고양시 등도 본 사업에 적합한 지역임.

9. 정책 제언

가. 지역 및 프로그램 특성을 반영하는 사업 목표 설정

○ 경기도의 31개 시군은 인구 4만5천명의 농촌 지역에서부터 인구 백만을 넘는 전형적인

도시 지역까지 매우 다양한 지역적 특성을 지니고 있음. 서비스 수혜자의 모집단이 이렇게 격차를 보이는 곳에서 동일한 사업 목표치를 설정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함.

○ 경기도의 가족정책 및 가족사업은 가야할 방향을 명확히 설정하되 구체적인 목표와 세부적인 사업 내용은 지역 특성과 서비스 전달체계의 특성에 맞게 조정할 수 있도록 융통성을 둘 필요가 있음.

○ 단지 수혜자의 적극적 발굴 측면에서 도덕적 해이를 지양하기 위해 최저치 초과를 유도하는 지침은 필요함. 또한 시군의 서비스 전달체계는 올바른 사업 수행을 위해 수혜자를 확대하고자 노력해야 함.

나. 가족의 변화를 반영하는 사업 기획

○ 경기도 혼인 5쌍 중 1쌍 이상이 재혼가족임을 감안한다면 꼭 필요한 프로그램임에는 틀림없음. 그러나 사업 대상자들이 쉽게 드러나지 않는 점, 노출을 꺼려서 프로그램 참여에 소극적인 점 등을 감안한다면,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힘듦.

○ 꼭 필요하지만 수행하기는 힘든 사업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함.

○ 사업의 결과 상에서 수혜 가족 수가 많지 않을 수 있지만 지금까지의 가족 서비스 전달체계 상에서의 사업 진행 과정을 참고로 할 때, 사업이 지속되다보면 홍보되고 정착되어 참여도가 조금씩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다. 경기도 가족사업의 수료 및 인증과 성과보고회 개최

○ 경기도민 대상 가족사업을 보다 홍보하고 사업의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서비스를 받은 수혜자 대상으로 수료증을 수여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음.

○ 행복한 가족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다양한 형태의 교육을 이수하고, 상담을 진행하고, 체험과 활동을 통해 가족의 변화를 경험한 이들에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가족의 건강함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다짐의 계기를 마련해줄 수 있음.

○ 경기도와 시군이 사업비를 마련하였고,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사업을 수행하였으며, 일정 회기 이상을 의무적으로 참여하여 가족의 변화를 경험했음을 인증하는 수료증으로서 경기도지사 혹은 시장·군수의 명의로 주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음.

○ 경기도 가족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에 성과보고회를 개최할 것을 제안함. 성과보고회의 자리를 통해 사업을 진행하면서 나타났던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모니터링 결과를 어떻게 환류하여 사업을 조정하였는지를 소개하며, 사업을 효과적으로 이끌었던 전략을 제안함으로써 향후 사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자리를 마련함.

○ 성과보고회에 모인 사람들이 자신들의 사업 소개와 더불어 자신들이 직접 우수사례를 뽑는 과정을 포함시킬 것을 제안함. 정보 공유의 장이 되면서 동시에 노력을 인정받는 작은 축제가 될 수 있을 것임.

라. 경기도 대표 가족사업의 발굴과 정착

○ 경기도 고유의 가족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연구가 선행되어야 하고 연구 결과를 기초로 사업이 기획되어야 함.

○ 향후 경기도의 대표 가족사업을 발굴하고 기획하기 위해서는 추가의 면밀한 연구를 제안하는 바임. 장기적인 안목에서 경기도 가족의 변화를 반영하고, 경기도 가족정책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연구를 통해 가족정책과 사업의 방향을 되짚어볼 필요가 있음.

요약보고서 정책보고서 2019-01

"행복한 가족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연구

발 행 일 2019년 5월 31일
발 행 처 (재)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주 소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150
전 화 Tel. 031)220-3900 Fax. 031)220-3979
홈페이지 www.gfwri.kr

ISBN 978-89-6432-429-5 93330

본 출판물의 저작권 및 판권은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에 있습니다.